

<안승준문고> 복원과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 특별전

학술정보개발과 민세영

1.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 특별전

2020년은 한국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전태일 열사 50주기,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특별전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 서울대인과 서울대 도서관의 경험’(2020. 6. 8. ~ 11. 20.)이 중앙도서관 관정관 2층 관정마루에서 열렸다.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고비마다 서울대인이 맡았던 역할과 서울대 도서관이 겪은 경험을 나누기 위한 행사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 서울대인과 서울대 도서관의 경험’ 특별전



이 특별전에는 한국 현대사 격동의 시기를 같이 했던 중앙도서관의 두 자료가 전시되었다. 4월 혁명의 희생자인 안승준을 추념하기 위하여 1962년에 설치되었던 <안승준문고>가 복원되어 전시되었고,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 부대 병사가 역사적 증언을 위해 가져갔던 고서 『De Ratione...』이 2020년 4월, 70년 만에 서울대로 돌아와 소개되었다. 60년이 지난 <안승준문고>를 복원하기 위하여 자료를 찾고 기념 행사를 준비했던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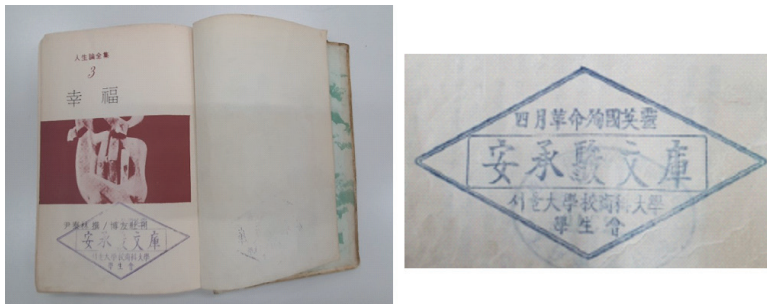
[그림 2] 〈안승준문고〉와 귀환 도서



2. 〈안승준문고〉에 대하여

상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안승준 동문은 1960년 4월 19일 경찰의 총탄에 산화하여, 4월 혁명의 초석이 되었다. 1962년 상과대학 학생회는 안승준 동문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자 상과대학 도서관 내에 〈안승준문고〉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최문환 상과대학 학장, 변형윤 상대도서관장 등의 협의 끝에 그 해 상과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500환씩을 각출하여 문고 기금을 마련하였다. 상과대학 도서관은 관내 진열 서가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 도서 위주로 문고를 구성하였고, 도서관에는 ‘4월혁명순국영령 안승준문고 서울대학교상과대학 학생회’라는 장서인을 찍어 관리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안승준문고〉 장서인



당시 안승준 동문을 추모하기 위하여 기념탑 대신 기념 문고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주요 일간지에 소개될 정도로 의미 있는 추모 사업이었다. 상과대학 학생회는 1962년부터 1964년 사이 593권의 도서를 수집하였고, 이후에도 4·19 기념식에 맞추어 해마다 〈안승준문고〉 봉정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의해 종암동에 위치한 상과대학이 관악 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상과대학 도서관(당시 상경도서관) 장서는 중앙도서관으로 관리전환 되었고, 이 문고 역시 다른 분관의 도서와 함께 일반 단행본으로 통합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¹⁾

1) 안승준문고 복원 기념식 행사(2020. 11. 5.) 중 복원 경위 발표 내용(학예연구사 송지형)

3. 〈안승준문고〉 복원

잊혀졌던 〈안승준문고〉는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의 송지형 학예연구사가 2016년 『서울대학교 도서관 70년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특별전에서 4월 혁명의 관련 내용으로 기록되어 전시되었고, 이를 계기로 도서관에서는 역사를 되짚어보고 희생자의 뜻을 기리고자 〈안승준문고〉의 복원을 결정하였다.

복원 사업은 해당 자료를 소장하고 있던 단행본자료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관련 대학신문 기사를 근거로 등록번호 범위를 추정하여 당시 상경도서관 도서관부를 확인한 끝에, 상경도서관이 1962년부터 1964년 사이에 입수한 책 중에서 본관 단행본자료실과 수원보존도서관에 흩어진 〈안승준문고〉 317책을 찾아내었다.([그림 4] 참조)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제일 중요한 정보가 담긴 도서관부에는 당시 손으로 적던 시절이라 도서의 입수 일자과 구입/기증 구분이 극히 일부만 표시되어 있었고, ‘상동’을 의미하는 중복 부호(〃)도 많아 구분이 어려웠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해당 범위의 단행본 자료를 일일이 펼쳐 보며 〈안승준문고〉 장서인이 표시된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찾아내려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중앙도서관이 도서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부터 상당수 책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상태였다. 당시의 문고를 온전히 재현할 수는 없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책만으로도 안승준 열사의 의로운 죽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는 데에는 충분할 것이다.

4. 〈안승준문고〉 복원 기념식

2020년 11월 5일에 개최된 〈안승준문고〉 복원 기념식은, 1964년 6월에 치러졌던 대학신문 사진 속의 〈안승준문고〉 봉정식을 재현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기념식에는 오세정 총장을 비롯한 학내 주요 인사들과 학생대표, 안승준 동문의 유족 및 동기들이 참석하였다.([그림 5] 참조)

[그림 4] 대학신문 1964년 6월 1일자



[그림 5] 〈안승준문고〉 복원 기념식



저만치 떨어져 있던 한국 현대사였는데, 〈안승준문고〉 복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의 편린들이 실체가 되어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출발에서 비늘을 찾듯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나타났던 〈안승준문고〉 장서인이 찍힌 책은 너무나 소중하였다. 안승준과 마지막 행진을 함께 했던 허광국 선생과 연락이 닿았던 순간도 잊을 수 없다. 동창회 사무실에 연락하여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나서야 58학번 상과대학 동창회장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병원에 입원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다른 동기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순간 그분들의 연세가 팔순이 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과연 안승준과 시위 현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분, 세 번째 분과 전화 연결이 될 때마다 잘 모른다는 말씀에 마음을 졸였지만, 매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절했다.

그러다 마침내, 58학번 동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덕분에 4월 19일 현장에 있었던 안승준 열사의 고교 동기 허광국 선생과 연락이 되었다. ‘경무대 앞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며 같이 행진하던 중 갑자기 총성이 울리는 바람에 모두 흩어져 본인은 이발소에 숨었는데, 나중에 보니 친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시신이 서울대 병원에 안치되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다’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 이야기는 〈안승준문고〉 복원 기념식에서 다시 한 번 전해지게 되었다.

[그림 6] 〈안승준문고〉(단행본 8자료실 개인문고)



〈안승준문고〉는 본관 4층 단행본 8자료실 개인문고에 설치되었다. 총 318책으로 복원 도서 317책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6회 동창회가 2019년에 집필한 『서울商大58會 入學60周年 紀念文集』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념문집²⁾은 안승준 열사의 입학 동기들이 겪은 유년 시절의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전쟁 및 대학생이던 청년 시절의 4·19혁명, 5·16 군사 쿠데타, 유신독재 항거, 그리고 중년의 산업 발전 역군으로서의 활약과 외환 위기까지³⁾ 60년 격동의 삶이 기록된 것으로, 친구를 기리는 기념 문고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그림 6] 참조)

2)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48032>

3) 주간한국. <https://weekly.hankooki.com/lpage/society/201904/wk20190429212826146100.htm>

5. 마무리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시대를 한정하지 않고 전 시대와 지역에 걸쳐 역사적 줄거리를 서술하는 통사는 역사의 주요 사실만 다루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이미 본 영화를 다시 보는 것 같아 재미가 없다. 그러다보니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처음 읽는 음식의 세계사』, 『지리의 힘』, 『30개 도시로 읽는 세계사』 등 한 가지 주제로 접근하여 흥미진진하고 생동감 있게 풀어가는 역사 이야기가 더 와 닿는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70년사』의 학술정보 확충 부분을 작성하면서 참고했던 자료 중에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이 있다. 도서관에 몸담고 있는 나에게 익숙하고 흥미로운 소재인 책에 얹힌 이야기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한국 현대사에 접근해 본다. 『서울大學校 圖書館五十年史』 중 「전란 속의 도서관(1950~1953)」과 「전후 복구와 재건(1953~1960)」에 기술된 도서관 이야기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감동적이고 흥미로웠다. 사서의 표상인 백린(白麟) 선생이 한국 전쟁 당시 부산으로 소개(疏開)한 귀중자료를 지키기 위해 책 더미 위에서 밤을 지새운 이야기, 종전 후 복귀한 서울 본관의 거대한 창고 속에 어지럽게 쌓인 책 무더기에서 한 권 한 권을 석탄 캐듯 캐어내던 이야기 등, 도서관의 역사가 편년체로 기술되어 선배 사서들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역사 소설과 같으니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 때문에 6·25 전쟁 당시 없어졌던 도서 한 권이 영국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더욱 솔깃하게 들렸는지도 모르겠다.

선배들에게 들었던 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시위 현장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2002년에 은퇴한 박종근 과장의 글을 소개한다.

동승동 시절 밤 새워 데모하는 학생들과 대치하면서도 그들에게 간식 주던 생각도 난다. 일부 불순 과격분자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정의감에 불타는 학생들의 순수성에 공감했기 때문이었으리라. 80년대 관악에서는 경찰이 도서관에 상주했고 학생들의 도서관 점거로 밤새우기 일쑤였고 직원들은 남녀별로 조를 짜서 화장실에 불온 낙서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각 열람실 창틀에 직원들을 배치하여 자살방지를 위한 감시업무도 했었다. 나는 1981.10.14.에 그 무시무시하다는 박종철이 죽었던 남영동의 치안본부 대공 분실에 연행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반정부 데모하던 학생의 집에서 불온도서가 발견되었는데 도서관에서 왜 불온도서를 대출해주었느냐고 추궁하기 위해서다. 문제의 책은 『Labor and Monopoly Capital』인데 나는 도서관에서의 자료 분류는 주제 분류이지 불온성 여부 분류는 사서의 일이 아니라고 소명하였다. 현행법도 아닌 현직 사무관을 일과시간에 연행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라고 하여 총장께서 적극 애쓰시어 나는 8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서관에서는 관계 요로의 협조를 받아 금서 목록을 입수하고 열람용 목록 카드함에서 문제의 책들이 검색되지 않도록 카드를 색출 별치하고 전문 교수들의 불온성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가 신규로 생겼고 또 통일원과 안기부가 중심이 되어 불온간행물을 관리하는 모든 도서관 등이 회원이 되는 북한자료교류협의회의 창설 운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박종근, 2019, p.12).

〈안승준문고〉가 복원되기까지는 4·19 혁명이라는 빛나는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금 모금을 통해 문고를 설치한 상과대학 학생회를 시작으로 상과대학 도서관에 설치됐던 기념패를 대신 보관하다 기록관에 전한 서울사대부고, 4월 혁명의 정신을 잊지 않고 그를 기리며 살아가는 동기들과 유족들, 우리 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조명하고 기억하고자 특별전을 개최하고 사람들에게서 잊힌 문고를 발굴해 낸 도서관 등 모두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안승준문고〉는 일사, 가람, 상백 등 15개의 개인문고와 함께 길이 보존될 것이다. 안승준 기념패의 글귀로 삼가 추모의 마음을 대신한다.

“진리를 하늘에 따지며 정의를 조국에 외친 영원한 4·19의 꽃 안승준 군의 넋이여 고이 잠드시라.”

참고문헌

- [1] 김명환. 70년 만에 전장에서 돌아온 책. 2020. 『경향신문』 6월 19일자 정동칼럼 [online] [cited 2020.06.19.]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006190300105>>
- [2] 민세영. ‘안승준문고’ 다시 태어나다. 2020. 『대학신문』 11월 30일자(제2017호) [online] [cited 2020.11.29.]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44>>
- [3] 박종근. 2019. 소회(所懷). 『도우회보』 22:11-15.
- [4]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6회 동창회. 2019. 『서울商大58會 入學60周年 紀念文集』 시사금용사.
- [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06. 『서울大學校 圖書館五十年史』
- [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7. 『서울대학교 도서관 70년사』
- [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20. 『안승준문고 복원 기념식』.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컬렉션 > 전시컬렉션) [online] [cited 2021. 7. 15.] <<https://lib.snu.ac.kr/find/collections/exhibition3/list1>>
- [8]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20.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 서울대인과 서울대 도서관의 경험』 특별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컬렉션 > 전시컬렉션) [online] [cited 2021. 7. 15.] <<https://lib.snu.ac.kr/find/collections/exhibition1/list1>>
- [9] 송지형. 안승준문고 복원 경위, 2020. 11. 5. 안승준문고 복원 기념식.
- [10] 안승준군 기념패 제막. 1964. 『대학신문』 6월 1일자(제550호)
- [11] 안승준문고를 확충: 3백권 사서 6일 봉납식. 1963. 『대학신문』 5월 9일자(제475호)
- [12] “우리 삶은 한국 현대사 축소판” 서울 상대 58학번들 문집 펴내. 2019. 『중앙일보』 [online] [cited 2019. 4. 23.] <<https://news.join.com/article/23448032>>
- [13] ‘정의’ 열망 민주화운동 1세대부터 산업 발전의 주역으로 ‘격동의 역사’. 2019. 『주간한국』 [online] [cited 2019. 4. 29.] <<https://weekly.hankooki.com/lpage/society/201904/wk20190429212826146100.htm>>
- [14] Theodorus Bibliander. 1548. 『De ratione communi omnium linguarum & literarū commentarius Theodori Bibliandri』 Apvd Christoph. Frosch.

부 록

『고 安承駿 열사의 추모 철제 플레이트』 보존 경위

서울상대 1958년 입학생 (서울고 출신) 고 安承駿 동문이 1960년 4.19 학생 의거로 희생됨을 기리기 위한 추모플레이트가 동기들의 뜻을 모아 1964년 서울시 성북구 중암동 19 옛 서울상대 자리 향상림 인근에 세워지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잊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박물관 『고 安承駿 열사의 추모 철제 플레이트』는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되고 1990년대 들어 중암동 부지에 서울사대부고가 들어서 학교 교사를 신축 정비하는 단계에 이 추모 플레이트가 다른 폐기물들과 함께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었다.

1994년 6월 어느 주말 서울사대부고 출신인 서울상대 1958년 입학 李善浩 동문이 북한산 산행을 하다가 우연히 당시 서울사대부고 曺三 교장과 마주치게 되었다. “학교에 폐기처분 직전에 있던 철제 플레이트를 버리기 아까워 보관하고 있는데 그 추모철판이 1958입학동기의 것으로 보이니 확실하면 인수절차를 밟고 서울상대 16회 동기동창회 사무실에 보존함이 더 의의가 있지 않겠나?”하는 의사타진을 하여 와서 安承駿 동문의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제의를 받은 李善浩 동문은 추모동판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58회 입학동기회 사무실로 옮겨 (당시 58회 회장 金鍾瑞) 25년간 보관하게 된다. 58동기회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으로 두 차례나 옮겨 간 이후 사용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8년 11월경 (당시 동기회 회장 金炫柱) 서울상대 총동창회 (회장 成耆鶴, 사무국장 尹濟哲)의 주선과 노력으로 서울대학교 기록관에서 이 박물관수가 결정되어 양재동 58동기회 사무실에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로 옮겨졌다 (당시 동기회 간사 崔正珪 동문이 수고함).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안승준문고> 복원 기념식 날
작성자: 李善浩 (1958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입학 동문)